

# 제자리서 제할말 하는 또하나의 문화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펴낸 조혜정교수

우리사회 페미니즘 운동의 선도자이자, 조형 조옥라와 더불어 '사회학계의 3조'로 불리며 뛰어난 문화비평가로 문화인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정(47,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또하나의 문화) 시리즈의 두번째권을 최근 출간했다. 모두 4권으로 완간될 예정인 이 시리즈는 지난 92년말 그 1권을 펴냈고, 올 5월과 6월에 2권과 3권이, 그리고 조만간 4권이 씌어짐으로써 마무리될 계획이다.

1권이 나오자, “삶을 찾자는 말을 따듯한 글로써 풀어주어 고마웠다” “제도교육으로 망가진 내 모습을 돌아보며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없나” 등 일반독자, 대학생, 교수들의 예상밖의 격려와 많은 비평을 동시에 받으며 화제를 낳았는데, 본디 한권으로 쓰고 말 계획이 결국 네권으로 늘어난 데서도 보듯 이 책에는 그만큼 우리 문제의 심각함이 반영돼 있다 하겠다.

## 91년 1학기의 '실험적' 수업 담은 1권

“나는 여기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생산하지 못한 사회를 '식민지적'이라 부르고자 한다. 여기서 '식민지성'은 딱히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현상을 뜻하기보다는 지식과 삶이 겹도는 현상을 뜻한다”는 '식민지성'에 대한 저자의 규정에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비춰보자면, 90년대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식민지' 상태이고, 따라서 이 글은 거기에서 '탈'하려는 우리시대 한 지식인의 치열한 투쟁의 산물인 셈이다.

「바로 여기 교실에서」(1권) 「각자 선 자리에서」(2권) 「하노이에서 신촌까지」(3권) 제목으로 나온 각권을 개략적으로나마 연결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식민지적 사고에 젖어 있는지 '현실'(여기, 교실)을 먼저 분석해 보고, '각자 위치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여, 우리의 말 자신의 이야기로 풍요로운 삶을, 문화를 만들어가자”쯤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네권에 숨겨진 저자의 절망적 진단(1, 3권)과 “나도 한때는 서구에 매몰된 식민지인이었다”는 고백(2권), 그래도 실낱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4장)는 호소는 그의 다소 냉소적이

그가 더이상 헛도는 수업을 그만 두기로 결심한 것은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외국의 어려운 문화이론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을 보고서였다. 요약도 잘하고, 리포트도 너무 잘써 그에게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게 할 정도였지만, 막상 응용된 차원의 질문을 던지거나 “그것으로 내삶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었는가”를 물으면 전혀 감을 못잡아 그를 경악시켰다.

조혜정 교수.



고 활달한 구어적 문체에 가려져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1권에서 식민지성의 분석을 '교실'로 정한 것은 내가 활동하는 곳이 바로 학교였고, '삶'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포기한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 소위 지식인을 생산한다는 우리 대학이라면 우리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몹시 어려운 입시지옥문을 통과해 들어온 이들 대학생 중에는 의외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자기사랑 없음'을 입시교육과 지식인 문화가 지닌 '식민지성'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았던 거지요.”

가령, 그가 더이상 헛도는 수업이 아니라 생산적인 공부를 하자고 결심한 것은 이전에 '문화이론'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기어츠, 메리 다글라스, 살린즈, 그람시, 르페브르, 데리다 등 굉장히 어려운 외국문화이론을 학생들이 너무 잘 이해하는 것을 보고서였다. 요약도 잘하고 리포트도 너무 잘써, 그에게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게 할 정도였지만, 막상 소화되고 응용된 차원의 질문을 던지거나 “그것으로 네 삶을 얼마만큼 읽어낼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면 전혀 아무 감을 못가지고 멍뚱뚱 쳐다보기만 해 그를 경악케 했던 것이다.

그는 외국문화이론을 가르치던 종전의 수업에서 우리네 소설, 학술지의 기고문, 동화들

을 읽고 생각을 쓰고 또 토론하는 실험적 형태로 방향을 트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강좌가 끝날 무렵 참여자 대부분이 문화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결국엔 문화를 강의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문화이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다”고 확신할 만큼 성과를 거둔다.

2권은 지식과 권력, 경험의 개념을 중심으로 '교실을 벗어나' 우리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식민지성'을 풀어나간다. 이때 그는 자생적 근대화를 이룩한 서양의 지식과 경험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2장 '식민지사, 그 타자의 얼굴' '지식/권력에 대한 성찰' 편에서는 '식민지' '식민주의' '식민성'에 대해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다. “식민지 지배체제하에서 설령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해도 계속 주체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적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는 증거”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나는 여기서 탈식민지화의 방법론으로 지난 4, 5세기 동안 '보편성'의 자리에서 군림해온 서구를 상대화시켜볼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주의'라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만들어낸 권위주의적인 언설을 해체하고 식민지적 상태에서 심하게 '타자화'되어 버린 우리 자신을 다시 타자화함으로써 재구성해 나갈 것을 주장하지요. 이때 우리는

아버지 언어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다름'을 포용해 가는 훈련을 해야 하며, 자기가 선 주변의 자리에서 역사를 기억해내고 자신의 일상을 이론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고백을 시도한다. 보통의 책이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거창한 방법론이 제기될 텐데, 그는 우회해 자기고백을 쓴 것이다. “오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서구중심적인, 도시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 소위 엘리트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왔고, 결국 자신이 지식 생산의 주체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향과 갈등이 있었는가를 들려준다. “갈등의 해결은 나 자신을 주변인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될 거다”고 말하는 그는 2권의 제목처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충고하는 셈이다.

곧 나올 3권은 우리의 주변 곳곳을 돌아보며 “우리가 문화없이 얼마나 황폐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이며, 4권에서는 아무래도 저자 자신의 주장이 많이 담겼을 1, 2, 3권의 논의를 떠나 그 논의에 비평을 제기해온 '우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볼 예정이다.

## “즐겁게 사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길”

식민지성이 분석되고 타자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럼 극복방법,

대안이 무엇이나'며 다그쳐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그들을 향해 "분석을 하지 않고 계속 해답만 묻는 자체가 '식민지적'이다"고 말한다. "치유의 방식이 그렇게 간단히 있다고 낙관하지 말아야 해요.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풀겠다는 최소한의 자기사랑, 자신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사고력과 최소한 '헛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자기다짐이 있을 때,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을 모으고 토론하고 나름대로의 대안문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일상을 '혁명하겠다'는 자세로 실천을 해나갈 때, 그때는 비로소 비전이 보이겠지요."

가령, 그는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월세 1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과출부를 해 돈을 벌고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꼭 곁 흔해야 하는가, 육체노동을 하면서, 독신으로 글을 쓸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식의 상상력조차 말할해 버린, 그렇게 살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그걸 또 견뎌내지 못하는 사회"가 여태까지의 우리였다. 그는 "남의 눈치보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 당신이 즐겁게 사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다"고 부추긴다. 그것이 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 길이다며.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는 '또하나의 문화'다.

"우리가 처음 그걸 만들고 낯선 이름을 걸고 모임을 가질 때, 다들 '뭐하는 사람들인가'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창립 취지문에서도 밝혔듯이 '대안문화의 창출'이라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 만들었어요. 내 딸은 또문을 가리켜 '엄마의 쉼터이자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론과 현실의 갭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역할을 또문은 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새 문화 만들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방황중일지 모릅니다. 또 그 모임이 없었다면 이런 책은 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식이란 상호관계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나의 책은 또문의 동인, 나아가 친구들이 공동저자이지요."

이 '개성적인 모임'의 특성을 그는 이런 예로 설명한다. 10명이 새로 오면 그중 1, 2명을 제외하고 다들 실망하고 돌아간다. 이유는 "따뜻하게 챙겨주지 않아서." "저는 또문이 토론을 가능케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지 '너 왔

니' '어떠니' '외롭지, 생일파티해 줄게' 등의 일상적인 치레와, 동병상련의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보지는 않아요. 우린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또문뿐 아니라 나는 그때그때 관심이 있으면 모임을 만들어요. 물론 의기투합하는 친구들이 있어야지요. 그러다가 또문 내의 '비디오 모임'처럼 한 2년간 열심히 시간을 정해 보고 웬만큼 보았다 싶을 때 '좀 쉬다 하자' 제안했듯 활동목적이 엷어지면 해체하고, 또 필요하면 생기고... 자생적으로 생성·소멸되는 모임, 살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넓혀지는 관계, 저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자기 삶, 자기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만나 토론하는 '문화/권력연구모임' 외에도 여러 모임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남들이 언제 저 일 다하고 사나" 말할만큼 틈없이 산다.

#### 인문학자에게 장르를 넘나드는 훈련은 필수

그는 최근에는 자신의 연구작업을 영상화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것은 "그건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사진을 비롯한 영상매체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많은 사진을 통해 지면을 훨씬 회화적으로 구성했듯 그것이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영상작업으로 가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영화도 찍고 소설도 쓰고 장르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좋은 인문학자'의 조건이라 말하는 이 '활달한' 여성학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회학과와 미주리대와 UCLA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서문에서도 쓰고 2권의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는 "늘 토론의 장을 열어 놓고 있는" 남편, 무크「또하나의 문화」10호에 '투쟁하는 삶은 아름답다'는 '과격한' 제목의 글을 쓴 미래의 환경운동가 딸(고 2), "요즘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없다"며 투덜대는 아들(중 2) 4명이 모여만든 가족문화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서로 할 말은 다 하고, 각자 알아서 놀고, 또 함께 만나 이루는" 또하나의 문화의 장이다.

— 정혜옥 기자



## “성균관 개구리 한술에 뛰어든다!”

자나 깨나 글을 읽는 사람을 밟지 않게 놀리는 말인 '성균관 개구리'

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글발을 일구고자 6년 전 한술은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출판인들과 소중한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잘 여문 옥수수처럼 수수하게 빛나는 책의 얼굴 갖 나온 책들을 만족스레 쓰다듬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하는 그분들을 배울 때 우리들의 피로는 파도 같은 희열로 끊어옵니다.

출판에 관계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출판전문 제작대행사-**한술**, 우리의 힘은 바로 글을 사랑하는 '성균관 개구리'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한술기획**  
한술

출판전문회사 『한술기획』은 전자조판에서 편집교정, 자비출판, 제작에 이르기까지 출판 전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은행으로서 출판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성·신인작가들의 옥고(玉稿),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과 기존 출판사들께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